

국내 인쇄 및 포장산업 품질 향상 기여

연포장 인쇄 및 가공, 플렉소 인쇄로 전환 기대



김영근
파앤씨 대표

세계 최고 품질의 플렉소 인쇄기 및 라미네이터 제조 업체인 코멕시(Comexi Group)그룹은 스페인에 본사 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로 세계 최초로 8도 플렉소 인쇄기를 개발하고, 슬리브 타입 플렉소 인쇄기를 상용화했다.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코멕시의 기술은 연포장 인쇄를 그라비아에서 플렉소 인쇄로 대체시키는데 큰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멕시 플렉소 인쇄기는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포장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플렉소 인쇄기를 연포장 시장에 공급했다는 데 있다.

분당 350m 이상의 인쇄가 가능한 새로운 플렉소 인쇄기는 오퍼레이터가 필요없고, 8도 작업교체시간이 10분 이내로 짧으며, 인쇄 중 다음 작업 준비가 가능해 편리하다. 또한 8도 새 작업 시, 200m로 인쇄 준비 작업을 완



▲ 고품질의 패키지 인쇄 구현



▲ 코멕시 인쇄기

료할 수 있으며, 8도 새 작업 준비 시작 후 3분 내에 최종 인쇄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멕시 넥서스 라미네이터는 기존의 드라이 라미네이션에 비해 원가를 30~40% 절약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린패키지(Green Package) 시작의 가장 쉬운 실천 단계인 무용제 라미네이션 기계로 고객의 용도에 따라 다양화된 모델을 생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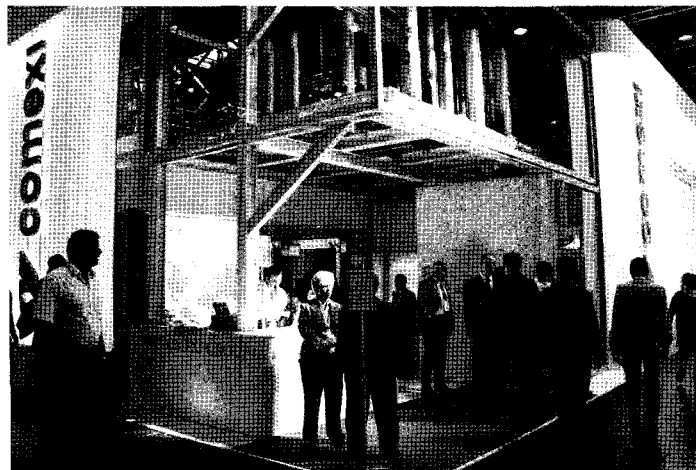
현재 피앤씨(대표 김영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렉소

(FLEXO) 인쇄 전문 업체로,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멕시(COMEXI.,S.A.)의 파트너사로 한국과 중국의 영업 및 기술지원을 책임지고 있다.

피앤씨가 국내와 중국에 공급한 플렉소 인쇄기는 광폭기준(1,000mm 이상)으로 총 21대(한국 15대, 중국 6대). 이는 아시아 최대의 수치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 2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4도 플렉소 인쇄기를 OEM으로 국내 생산,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피앤씨가 공급하고 있는 가공기의 종류로는 종이백, 쇼핑백 가공기, 로터리 카터, PE 백 가공기 등이 있으며, 특히 패스트푸드 식품 포장재 분야는 아시아 최고의 기술과 경험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피앤씨를 이끌고 있는 김영근 사장은 1984년부터 플렉소 인쇄 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 피앤씨를 창업, 플렉소 인쇄 외길만을 25년 이상 걸어왔다.

김 사장이 창업할 당시만 해도 플렉소 인쇄는 일반인에



▲ Drupa 2008 코멕시 전시 부스

P&C

계는 물론 인쇄 업계에서도 생소한 분야였을 터.

그는 분야별로 플렉소 인쇄를 적용시킨 결과, 쇼핑백, 패스트 푸드백, 쌀포대, 사료포대, 연포장, 카톤박스, 종이컵, 각종 식품포장, 골판지 프리 프린트 인쇄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성공리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다.

김영근 사장은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플렉소 인쇄 기술을 가지게 되어 이 기술을

중국에 소개하고 판매 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피앤씨(P&C Co.)는 지난 달 9일 서울인쇄센터에서 연포장 및 플렉소 인쇄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플렉소 인쇄와 무용제 라미네이션을 활용한 그린패키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국내를 비롯, 일본,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친환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피앤씨는 세미나를 통해 국내 연포장 업계에 수성잉크 사용 플렉소 인쇄, EB 플렉소 인쇄, 무용제 라미네이션 등 저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 패키지 방법을 소개했다.

피앤씨 관계자는 “연포장 인쇄 및 가공 방식이 그라비아 인쇄에서 플렉소 인쇄로, 또 무용제 타입 라미네이션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국내 식품 포장재가 좀 더 안전하고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씨는 앞으로도 플렉소 인쇄와 그와 접목된 가공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국내 업체와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 국내 인쇄 및 포장산업의 품질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박초혜 기자



▲ P&C가 주최한 그린패키지 세미나